

‘사고없는 시민의 삶’ 최우선 행정...한국 대표 안전도시 ‘우뚛’

‘안전도시’ 광주 (상)

과거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광주시가 민선 8기 들어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강화 정책으로 전국을 대표하는 안전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 주도형 안전문화 확산과 시민참여형 안전취약시설 점검·비상대피훈련, 선제적 중대재해 예방 체계 구축, 안전 유사 사고 사전 예방활동 강화, 자연재난·사고 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한 안전인프라 확충 등이 광주시의 안전 강화 대표사업이다.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를 시정 목표로 내건 광주시는 이 같은 노력 덕분에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주관 안전점검 우수기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여름·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우수 자치단체 등에도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민선 8기 들어 강기정 시장 주도 호우·폭염 등 위험기상 예보단계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

민선 8기 들어 안전점검 국무총리상·자연재난대책 우수상 등 수상 정부, 강기정 시장 주도 선제적 예방·대응체계 구축 등에 높은 점수

본부를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훈련, 재난 대비 현장점검 및 수시 예찰을 강화한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

◇시민과 함께하면 안전문화 확산도 ‘쑥쑥’=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모든 안전 사고가 시민의 삶과 밀접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민이 주도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발굴·해소하는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안전문화 운동, 시민 주도형 안전마을 3개소 조성, 안전보안관 348명 육성 배치,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 66명 운영 등이 대표 사업이다.

시는 또 생활 속 위험요소 발굴과 취약분야 안전 문화 실천을 목표로 안전 신문고에 접수된 38만 7129건의 안전 민원을 철저히 분석해 생활 주변 위험요소를 차단하는데도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는 시민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에도 진심

을 다하고 있다. 시민안전교육센터 주관 안전교육 2278명, 어린이 안전체험관 6700명,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 328회·9000명 교육 등 다양한 교육실적이 안전 교육에 대한 광주시의 열정을 증명하고 있다.

시는 이 밖에도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민간 참여 합동점검도 강화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만 어린이 놀이시설과 침수취약지역 등 1236개소를 집중 점검했다.

◇선제적 예방·대응 재난 안전 사각지대 해소=광주시는 기존에 발생한 유사 사고 재발을 막고, 취약 분야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예방 활동에도 집중하고 있다.

시는 특히 5~12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안전진단 및 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 사고에 대해

서도 강도 높은 선제 예방 활동으로 지역 내 발생을 막아내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국적으로 인건 주차타위, 화성배터리 공장 화재 등이 발생했지만, 광주시는 신속한 관련 사업장 점검 활동을 통해 단 건의 유사 사고 발생도 허용하지 않았다.

시는 또 조금만 방심해도 인명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물놀이 시설, 급경사지 및 행사·축제장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집중 점검에 나서 시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시민건강과 밀접한 위해 위해환경을 미리 차단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안전업무 중 하나다. 시는 지난해에만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과 불법 위생·의약 분야 등을 기획수사에 53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실적을 냈다.

광주시는 또 정부의 2023년과 2024년 폭염·혹한기 자연재난대책 정책 평가에서도 연이어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기도 했다.

◇현장 중심 재난 안전 예방·대응 체계 구축=광주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시민의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현장중심 예방·대응 체계 구축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수시로 풍수해 및 도시철도 대형사고 대비 합동 훈련에 나서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교육·개선, 재난 유형별 상시훈련 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문제 해결형 집중 훈련 정책으로, 행안부 평가에서 4년 연속 안전 대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까지 냈다.

광주시는 또 호우 등 자연재난에 강한 도시 구축을 위해 침수 예방 인프라 구축에도 집중하고 있다. 우산지구와 문흥동 일원, 북구청 사거리, 신안교 일원 등 4개소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했고, 송정교 침단 등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도 마무리했다. 또 여름철 집중 폭우 등에 대비해 침수방지 시설 44개소를 설치했으며, 설치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민 안전과 보호는 행정의 제1의무로,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것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3일 광주시 남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시민법안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새해맞이 합동세배에서 노인회원들과 남구지역 주민들이 새해 덕담을 나누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AI기업들, 인공지능 중심거점도시 광주로

인공지능기업 9개사와 협약

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AI컴퓨팅센터 설립 최적으로 광주시가 거론되면서 AI기업들의 광주행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1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임픽스, ㈜위즈코리아, ㈜윌링크, 하와이컴퍼니, 도와서, ㈜마이딜, ㈜플로레이, ㈜라이프퓨처텍, ㈜엡지컴퍼니 등 인공지능 분야 성장 주도기업 9개사와 255~263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업은 보안, 핀테크,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사만의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빠르게 성장 중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이 필요한 제조업, 자동차, 의료 등 지역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협약 내용은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과 추진, 기술·정책 자문

등 수행 ▲인공지능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인공지능 전문인력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이다.

기업 대표들은 “기술개발과 보급의 가속화를 위해 지역 기업·기관들과 활발한 네트워킹과 협업을 기대하고 있다”며 “기존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인공지능 기술이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공지능(AI) 기업의 광주행은 기업에 확실한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광주는 속도감 있는 AI인프라 집적을 통해 광주를 더욱 커진 대한민국 AI의 중심거점으로 자리매김시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활짝 열어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도, 마늘·양파 가격 수급 안정 관리...2년간 10억원 투입

재배기술 교육·농기계 보급 등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과 연계해 가격 변동성이 큰 마늘·양파 가격 및 수급 안정 관리에 나선다.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은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농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농가 조직화 교육, 상품성 제고를 위한 공동선별, 유통시설·장비 구입을 지원한다. 2개년 1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마늘·양파 등 노지채소 가격 및 수급안정

을 위해 자조금단체와, 사·군, 농협, 생산자 등이 포함된 민관 거버넌스 협업을 통해 사전에 자율적 가격안정과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마늘·양파 경영체의 ▲재배기술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생산기술 안정성 추구 ▲육묘, 복토, 정식, 줄기 전단, 수확 등의 농기계 보급을 통한 생산비 절감 ▲선별기, 건조기 지원을 통한 품질 표준화 등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상두 무안 호남영농조합법인 대표는 “그

동안 남도종 마늘 건조과정에서 변질이 빨라 취급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을 통해 농기계 확보와 재배농가 교육, 품질 개선에 노력한 결과 인건비와 생산비 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에 과장은 “재배 면적과 작황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마늘·양파 수급안정화를 위한 생육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과 연계해 농가소득 증대 관련 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양육비 신청하세요”

전남도,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전남도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을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 63% 이하(3인 가구 월 317만원·4인 가구 384만원 등)인 청소년부모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양국진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장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부모 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로 93가구(아동 112명)에 1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교회)



총장
김경운 박사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 범	유아교육과	8	2
예 능	음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